



2009년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 전망

이슈분석 ② - 중국

2008년도 중국 노동시장 · 노사관계 현황 및 2009년도 전망

황경진 (중국 인민대학 노동인사학원 노동법 및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머리말

지난 12월 2일 중국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2009년 중국경제 상황분석 및 예측(2009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預測)」(이하, 『2009년 경제청서』)은 2008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전년대비 2% 감소한 9.5%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하강하고 있는 와중에도 중국 경제는 여전히 10% 수준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2008년 1/4분기 10.6%, 2/4분기 10.1%, 3/4분기 9%로 2007년 2/4분기 이래 5분기 연속 하강하고 있다. 또한 2009년 중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고용시장이 위축되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성장 둔화로 경영환경이 악화된 가운데 기업들이 대규모 감원에 나서면서 노사간의 모순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2008년 중국의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전반적 상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다음 2009년의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노동시장 현황

2008년 도시지역 신규취업자 증가 및 등기실업률 감소

지난 10월 '인력자원과사회보장부(人力資源和社會保障部)'가 발표한 "2008년도 3/4분기 인력 자원과 사회보장부 업무현황 및 향후 업무계획(2008年三季度人力資源社會保障工作情勢和下一步工作安排)"에 따르면, 2008년 1~9월까지 중국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02% 증가한 936만 명으로 2008년도 목표(1,000만 명)의 94%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동기대비 102%). 이 중 하강(下崗) 실업인원 재취업자수는 409만 명으로 2008년도 목표(500만 명)의 82%, 취업곤란인원 재취업자수는 119만 명으로 목표(100만 명)의 119%를 달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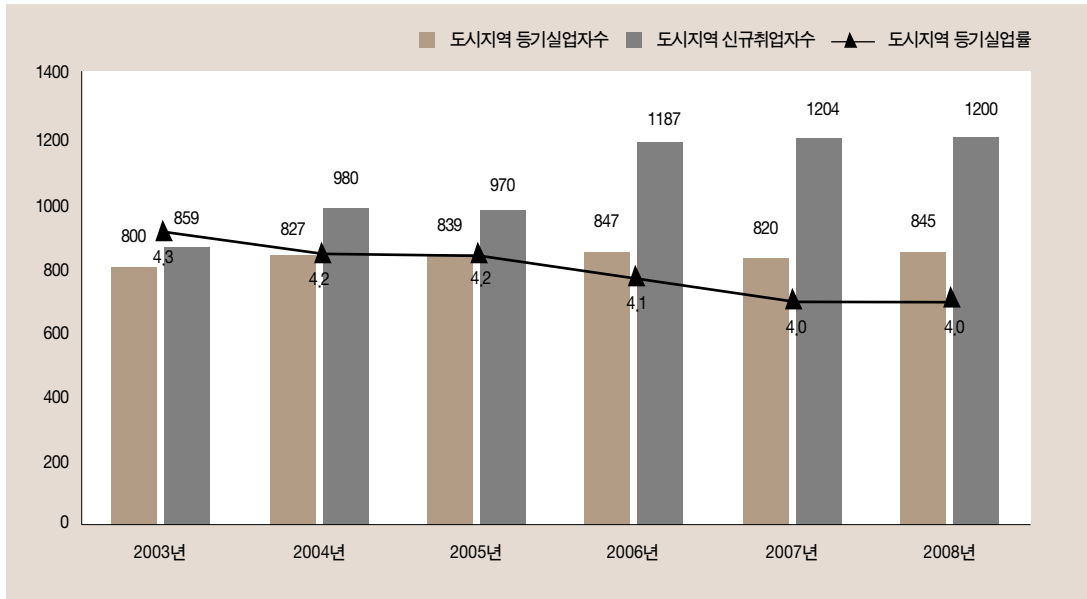
2008년 9월 말 현재 중국 도시지역 등기실업자수는 830만 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5만 명 감소했고, 도시지역 등기실업률은 전년과 비슷한 4.0%이다. 현재 중국경제에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가 확산되고 있지만, 2008년 3/4분기까지의 취업 현황으로 볼 때, 중국 정부의 올해 목표인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 1,000만 명과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5% 이내로의 억제에는 무난하게 달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09년 경제청서』는 2008년도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는 1,200만 명으로 올해 목표(1,000만 명)의 120%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¹⁾ 도시지역 등기실업자수 및 등기실업률은 각각 845만 명 및 4.0%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²⁾

1) 이 중 하강실업인원 재취업자 554만 명(2008년도 목표의 110%), 취업곤란인원 재취업자 130만 명(목표의 130%)으로 예측하고 있다.

2) 지난 12월 29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인웨이민(尹蔚民) 장관은 도시지역 신규취업자수 900만, 이 중 하강실업인원 재취업자수 500만 명, 취업곤란인원 취업자수 100만 명, 도시지역 등기실업률 4.6% 이내 억제를 2009년 취업업무 목표로 삼아 취업문제의 기본적인 안정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림 1] 중국 도시지역 등기실업자수, 등기실업률 및 신규취업자수 추이



주 : 2008년 통계는 중국사회과학원, 『2009년 중국사회 상황분석 및 예측(2009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의 추정치임.

자료 : 중국통계국, 『노동과 사회보장 사업발전 통계공보』.

도시지역 노동수요 전년 동기대비 감소

‘중국 노동력시장 정보망 모니터링센터(中國勞動力市場信息網監測中心)’가 전국 93개 도시지역 공공직업소개서비스기구를 대상으로 조사 수집한 ‘노동력시장 직업수급현황 정보(勞動力市場職業供求狀況信息)’에 따르면, 2008년도 3/4분기의 노동수요 및 공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각각 24만 6천 명(5.5%) 및 11만 6천 명(2.6%) 줄어들어 노동수요가 노동공급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도 3/4분기 노동수요 및 공급은 각각 474만 명, 490만 명으로 공급이 수요를 상회하는 구조는 여전히 변화가 없었다. 기업의 수요량을 구직자 수로 나눈 구인배율(求人倍率)은 2007년도 0.98과 비슷한 수준인 0.97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부지역 노동수요 및 공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3만 1천 명(11.3%) 및 30

〈표 1〉 2008년도 도시지역 노동시장 수요·공급상황

(단위: 명)

분기/노동력현황	조사규모(도시수/총인구)	노동수요	노동공급	구인배율
1/4분기	104/1.9억	5,108,252	5,115,907	0.98
2/4분기	102/1.9억	4,897,333	5,014,286	0.98
3/4분기	93/1.8억	4,744,425	4,902,378	0.97

자료 : 중국 노동력시장 정보망 모니터링센터, 『중국 일부 도시지역 노동력시장 수급상황 분석』.

만 9천 명(7.3%) 줄어들었지만³⁾, 중국 정부의 중서부 지역 발전전략으로 이 지역의 노동수요 및 공급은 소폭 증가하였다. 중부 도시지역의 노동수요 및 공급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2만 7천 명(3%) 및 4만 9천 명(5%) 증가하였고, 서부 도시지역은 5만 8천 명(9%), 4만 4천 명(6.1%) 증가하였다.

외상투자기업의 노동수요 소폭 증가

사용자별 노동수요 상황을 살펴보면, 2008년 3/4분기 기업의 노동수요량이 전체의 97%를 차지하였고, 기관 및 사업단위의 노동수요 비중은 0.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노동수요에서 국내자본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72.7%로, 이 중 사영기업, 유한책임회사 및 주식유한회사의 노동수요는 각각 26.6%, 19.5% 및 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노동수요는 단지 5.6%에 불과했다.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들의 노동수요는 8.4%이며, 외상투자기업은 9.6%, 개체경영은 9.3%를 차지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국내자본기업, 개체경영의 노동수요는 각각 2.3%, 0.7% 감소를 보인 반면, 2008년 노동계약법의 시행으로 외자기업의 노동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외상투자기업과 홍콩, 마카오, 대만 투자기업의 노동수요는 각각 0.4%, 1.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 동부 도시지역 노동력시장 중, 장강 삼각주(長江三角洲) 지역의 노동수요 및 공급은 동기대비 각각 41만 명(25.2%), 30만 명(17.9%) 감소, 환발해(環渤海) 지역은 각각 3만 8천 명(4.6%), 9만 1천 명(11.2%) 감소, 민둥남(閩東南) 지역은 각각 12만 1천 명(32.7%), 18만 5천 명(65.3%) 증가, 주강삼각주(珠江三角洲) 지역의 수요량은 2.9% 증가했지만 구직자수는 3.2% 감소했다.

〈표 2〉 2008년 사용자별 노동수요 상황

(단위 : 명, %)

기업유형 / 분기	1/4분기(수요/비율)	2/4분기(수요/비율)	3/4분기(수요/비율)
기업	4,865,502(97)	4,727,199(96.5)	4,602,753(97)
국내자본기업	3,614,216(74.3)	3,459,197(73.2)	3,344,598(72.7)
국유기업	156,834(3.2)	191,976(4.1)	143,317(3.1)
집체기업	120,291(2.5)	141,056(3.0)	116,599(2.5)
주식합작기업	195,618(4.0)	194,576(4.1)	185,531(4.0)
연합경영기업	124,765(2.6)	111,284(2.4)	97,840(2.1)
유한책임회사	992,349(20.4)	887,926(18.8)	897,899(19.5)
주식유한회사	515,394(10.6)	520,284(11.0)	506,957(11.0)
사영기업	1,312,654(27)	1,251,051(26.5)	1,222,578(26.6)
기타기업	196,311(4.0)	161,044(3.4)	173,877(3.8)
대만, 홍콩, 마카오투자기업	371,941(7.6)	340,699(7.2)	387,845(8.4)
외상투자기업	428,525(8.8)	422,879(8.9)	443,217(9.6)
개체경영	450,820(9.3)	504,424(10.7)	427,093(9.3)
사업단위	24,521(0.5)	27,900(0.6)	22,611(0.5)
기관	7,143(0.1)	7,636(0.2)	6,054(0.1)
기타	121,087(2.4)	134,598(2.7)	113,007(2.4)
전 체	5,018,253(100)	4,897,333(100)	4,744,425(100)

자료 : 중국 노동력시장 정보망 모니터링센터, 『각 분기별 직업수급 정보보고』.

대졸자 구직난 심각

1999년 중국 정부가 대학 정원을 확대하면서 졸업자수는 2000년 8월 107만 명에서 2008년 8월 550만 명으로 무려 5배가 급증하면서 대학 졸업자의 취업 문제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해마다 대학 학생 모집 규모를 확대하면서 대학 졸업자수는 늘어나고 있지만, 공공부문에서의 신규 노동수요는 감소하고 있어, 대학 졸업자의 일자리는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2008년도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은 65%로 2006년도 62%, 2007년도 60%에 비해 꾸준히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3〉 연도별 대졸자수 및 취업률 추이

(단위: 만 명, %)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졸업생 수	107	115	145	212.2	280	335	413	495	550
취업률	65	70	65	70	73	72.6	62	60	65

자료: 중국 사회과학원, 『2009년 중국경제 상황분석 및 예측(2009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預測)』.

그러나 『2009년 경제청서』에 따르면, 미국발 금융위기로 내년 중국 경제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008년도 연말까지 100만 명의 대학 졸업자도 일자리를 찾지 못할 것이며, 2009년도 592만 명의 졸업자도 노동시장에 쏟아져 나와 취업여건은 더욱 나빠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 2009년 고용시장에 대한 불안감 확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글로벌 금융위기가 현재까지 중국 노동 측면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으나, 2009년 상반기부터 세계경제의 본격적 위축이 예상됨에 따라 중국 노동 측면에 대한 불안감은 확대되는 상황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2009년 중국사회 상황분석 및 예측(2009年中國社會形勢分析與預測)」(이하, ‘2009년 사회청서’)에서는 2009년 노동시장을 둘러싼 불안감을 크게 3가지로 보고 있다. 첫째, 수출이 1%포인트 높아지면 18~20만 명의 고용증대 효과가 있는 중국 노동시장은 2009년 미국, 유럽의 경기후퇴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수출이 줄어들면서, 일자리 창출 효과의 감소로 실업자가 급증할 것이고, 둘째, 실질임금의 상승과 노동계약법 실시에 따른 고용비용 증가가 중소기업의 고용감소로 이어질 것이며, 셋째, 긴축통화정책, 수출 감소 등이 이미 취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은 「2009년 경제청서」를 통해 경제침체기의 발생이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을 방지하기 위해 첫째, 「인적자원 시장관리 조례(人力資源市場管理條例)」, 「사회보험법(社會保險法)」 등의 법규 정책을 마련하여, 노동시장의 정보를 원활히 제공하고 인력자원시장의 유동성과 배치의 효율을 높일 것, 둘째, 노동자와 사용자에게 노동계약법 및 노동계약법 실시조례의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시켜 노사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것, 셋째, 공공취업서비스를 개선하여 도농간 취업정책을 총괄적으로 시행하고 평등한 취업제

도를 수립하여 농민공, 퇴역군인 등의 취업난을 해결할 것, 넷째, 대학 졸업자 취업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대학생의 창업을 장려할 것, 다섯째, 취업촉진법을 성실히 이행하여, 창업 및 직업 훈련을 실시할 것, 여섯째, 창업지원을 위해 소액대출제도를 개선할 것, 마지막으로 인적자원 시장을 통합하고 규범화하여 인적자원 배분의 효율을 높일 것 등 취업문제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 노사관계 현황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실시 및 경기침체로 노동분쟁 급증

2008년 중국 노사관계는 안정과 위협이 병존했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노동계약법(勞動合同法)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노사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동계약법 실시조례(勞動合同實施條例) 및 노동분쟁조정중재법(勞動爭議調整仲裁法) 등 노동관계 관련법령들을 잇달아 제정, 실시하였다. 이로써 경제발전 과정에서 누적되었던 사회적 갈등과 모순을 해소하고, 그동안 도외시했던 노동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관계를 규범화하였다. 그러나 신법의 시행과 세계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8년 노동분쟁 사건이 급증하면서 노사관계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2008년도 노동분쟁에 관한 정부기관의 공식적인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선전(深欄) 경제특구에서 2008년 상반기에만 발생한 중재사건은 23,78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4% 증가하였으며, 1~9월까지 접수된 안건은 38,807건으로 2007년 한 해 동안 발생한 노동분쟁건수 13,388건을 초과했으며, 2008년의 노동분쟁 안건은 전년대비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8년 상반기 광둥성(廣東省)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분쟁 안건은 중국 전 지역에서 발생한 노동분쟁 안건의 1/4분에 해당하는 17만 5천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배가 증가하였다. 상하이(上海)시 푸둥신구(浦東新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8년 상반기 노동분쟁 안건은 5,350건으로 전년 동기대비 약 3배가 증가하였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임금, 사회보험 및 복지혜택과 관련된 내용이 여전히 가장 많았고, 임금 관련 분쟁 중 초과근무수당과 관련된 분쟁이 전체의 6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회청서」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상황의 변화와 노동계약법 제정에 따른 노동자 권리의식 향상, 특히 지난 5월부터 시행된 노동분쟁조정중재법이 무료 중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기업의 위반행위에 대해 노동자들이 중재를 신청하는 경향이 높아진 사실을 2008년 노동분쟁 급증의 주된 이유로 분석한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기업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대규모 감원 및 다수 기업의 도산이 예상됨에 따라 2009년 노동분쟁은 더욱 큰 폭으로 증가될 전망이다.

조업 거부, 태업 등 집단행위 급증

2008년 중국에서는 동광(東方)항공 조종사들의 집단 회항, 충칭(重慶)지역 교사들의 집단 수업 거부, 충칭시를 시작으로 간쑤성(甘肅省), 란저우시(蘭州市), 하이난성(海南省) 쓰야시(三亞市) 등 9개 지역 택시기사 집단 운행거부 등 크고 작은 파업행위가 발생했으며, 광저우(廣州), 선전(深榴), 동관(東莞) 등지에서는 한 달간 연이어 20여 건의 파업이 발생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국영통신사인 신화사(新華社)를 비롯한 중국 언론이 파업이라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용어를 사용하면서 관련 소식을 적극적으로 보도했으며, 중국 당국 역시 기존의 강경 대처 입장에서 조정자 역할로 변했다는 사실이다.

한편, 2008년부터 ‘노동계약법’이 실시됨에 따라 선전시는 자체의 실정에 적합한 세부규정으로, 「선전경제특구 조화로운 노동관계 촉진 조례(深榴經濟特區和諧勞動關係促進條例)」를 제정하여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조례의 제53조는 “수도, 전기, 가스, 공공교통 등의 공공부문에서 노동분쟁으로 조업중단, 태업, 직장폐쇄 등이 발생하여 건전한 경제질서와 시민생활을 위태롭게 하거나 위협할 경우, 시(市), 구(區) 정부는 사태 악화를 막기 위해 30일간의 냉각기를 명할 수 있고, 이 기간 동안 노동행정부문과 노동조합, 관련 업종협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지속적 협상, 조정, 중재를 통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규정하여 최근 급증하는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이 정상적인 경제, 사회질서에 손해를 미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 맺음말

2008년 중국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환경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특히 노동법률 방면에서 노동계약법, 노동분쟁조정중재법 및 취업촉진법 등이 제정, 시행되면서 노동관계의 성립, 전개 및 조정에 있어 규범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가 중국 경제를 강타하면서 중국은 개혁개방 30년 이래 최대의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시장 및 노사관계의 정세는 한 치 앞도 예측하기 어렵게 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미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감소할 때마다 5.2%포인트 감소하는 정비례 관계를 보이고 있다. 만약 국제통화기금(IMF)의 예측대로 2009년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0.1%까지 하락한다면, 2009년 중국의 수출증가율은 전년대비 7.8% 하락할 것이므로 수출의 일자리 창출력이 감소하여 대규모 실업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 중국 당국의 일자리 창출의 의지는 중국 사회안정에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KLI**

참고문헌

- 중국사회과학원, 『2009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預測』, 북경 :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8년.
- 중국사회과학원, 『2009年中國經濟形勢分析與預測』, 북경 : 사회과학문헌출판사, 2008년.
- 창카이(常凱) 등, 『中國勞動關係報告-當代中國勞動關係的特点和趨向』, 중국 인민대학 노동관계연구소, 2008년.